

보도설명자료 (‘13.5.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미국중企, 한미FTA “만족”...비관세장벽 우려도
(‘13.5.27, 연합뉴스)

1. 기사내용

-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는 26일 한-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중소기업에 상대로 조사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, 대부분 중소기업이 한-미 FTA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나, 일부 기업은 아직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과 새로운 행정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함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

- 미국 ITC는 5.23(목)(미국 현지시간) 한-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·분석한 보고서*를 발표함.
 - 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한-미 FTA 중소기업작업반 활동의 일환으로 ITC에 동 보고서 작성을 요청

* U.S.-Korea Free Trade Agreement : Effects on U.S. Small and Medium-Sized Enterprises

- 동 보고서에서 ITC는 미국 중소기업들의 제출자료, 인터뷰 결과 등을 중심으로 한-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, △개요(보고서 작성 경위 및 정보취득경로) △한국 경제현황과 미국의 對韓 수출 △미국 중소기업의 한국 시장 경험 사례 순으로 구성됨 (본문 15페이지, 총 42페이지)

※ ITC 보고서 주요 내용

- ‘12.3-’13.2월까지 미국의 전체 對韓 수출*은 전년동기대비 7.2% 감소(392억불)
 - * ITC 보고서에는 중소기업의 對韓 수출 통계 불포함
- 소수 중소기업*들이 ITC의 코멘트 제출요구에 응답한 바, 일부는 즉시 수출증가를 경험하였고, 다른 기업들은 장기 협정 이행기간으로 인해 수출증가 가능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답
 - * 농업(포도주, 과실, 감자, 건초), 제조업(도구, 항공기부품), 서비스업(미디어, 소프트웨어) 수출 업체
- 대부분 미국 중소기업들은 한-미 FTA가 이미 유익한 것으로 증명되었고, 앞으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으나, 일부 기업들은 비관세장벽이나 새로운 행정적 부담에 대해 우려 표명
 - * ITC 보고서 원문은 ITC 웹사이트(www.usitc.gov)에서 입수 가능

- 우리 정부도 한-미 FTA가 우리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*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계기(업계와의 간담회, FTA 활용 촉진협의회 등)를 통해 기업애로 사항을 파악중임.

* 동 용역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주요 내용을 대외 공개할 계획

- 양국은 상기 분석·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향후 한-미 FTA 중소기업작업반* 등에서 중소기업의 한-미 FTA 활용 확대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.

* 한-미 FTA 중소기업작업반 개최 현황
- (1차) ‘12.6.8(워싱턴), (2차) ‘12.11.21(화상회의)

/끝/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박종한 과장(02-2110-4801)
윤창현 팀장(02-2110-4802)